| 방송통신위원회 | 보 도 자 료 | | | 금융위원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보도 | 배포 시부터 | 배포 | 2019. 5. 16.(목) 10:00 |

| 책 임 자 | | 담 당 자 | |
|---|---|---|---|
| |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천 지 현(02-2110-1540) | | 정 성 혜 주무관 (02-2110-1542) |
| |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(02-2100-2970) | | 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74) |
| |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이 성 호(02-3145-8521) | | 장종현 선임조사역 (02-3145-8534) |
| |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 경정 김 태 현(02-3150-2168) | | 김 태 훈 경위 (02-3150-1778) |

# 제 목 : 보이스피싱, 누구나!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!

## - 전체 국민, 5,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-

□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효성)와 금융위원회(위원장 최종구), 금융감독원(원장 윤석헌), 경찰청(청장 민갑룡)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

○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, 이동통신3사(SKT, KT, LGU+)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5.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**『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』**를 발송*할 예정임

* 이동통신 3사는 5.16.(목)~5.24.(금) 동안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,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(우편·이메일)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

※ 범정부차원에서 '18.12월 발표한 **「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방지 종합대책」의 일환**으로 추진되는 것임

< 메시지 내용 >

[보이스피싱 경보] 매일 130명, 10억원 피해 발생!
의심하고! 전화끊고! 확인하고!

□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·연령·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, **누구라도 피해자**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

○ 최근에는 **전화가로채기 앱** 또는 **원격조종 앱**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 **출처가 불분명한 앱**은 **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됨**

○ 또한, 112(경찰), 02-1332(금감원)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**발신 전화번호를 변경·조작**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

○ 검찰·경찰·금융감독원·금융회사 등은 **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**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**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**는 점을 명심

□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,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**"의심하고!"**, 일단 **"전화를 끊고!"**, 반드시 해당기관에 **"확인하고"**를 유념해줄 것을 당부드림

○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**지체없이 ☎112(경찰청)** 또는 **해당 금융회사**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**지급정지**를 **신청**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

※ (붙임)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례

**붙임** **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례**

## 피해사례 1 허위 신용카드 결제 문자 + 원격조종 앱

□ 2019년 3월 피해자 A(48세, 중소기업 운영)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하기 위해 **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**

○ 전화 상담원은 A에게 "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"며 A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

□ 잠시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(사기범)이 "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, 당신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모든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"고 하면서 A에게 휴대폰에 **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**할 것을 요구

○ 사기범은 A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면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,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"정상적으로 이체되는지 시험해보겠다"며 **A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**하게 하여 다른 계좌로 49백만원을 이체

⇨ **【유의사항】**

① 결제 문자메시지가 의심될 경우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지 말고 소지한 **신용카드 뒷면**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**인터넷 검색**으로 확인된 카드사의 전화번호로 문의

② **출처·용도를 알 수 없는 앱**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는 **단호하게 거절!**

③ **계좌 비밀번호**, **보안카드**, **OTP번호**를 알려주거나 입력하는 것은 **절대 금지!**

## 피해사례 2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

□ 2019년 2월 피해자 B(56세, 자영업)는 1577-XXXX 전화번호로 "OO캐피탈 대출 팀장입니다. 1천만원 전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**신용점수가 부족**하니 **대출을 발생시켜 갚는 방법**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됩니다"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음

○ B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**대출전용 앱***을 **설치**한 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△△카드사로부터 카드론대출 500만원을 받아 다시 갚기 위해 △△카드사 대표전화 1588-XXXX로 전화함

* 피해자가 휴대폰에서 거는 **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앱**으로서, 피해자가 △△카드 대표전화 또는 경찰서, 금감원으로 전화하더라도 **모두 사기범 일당에게 연결됨**

○ 카드사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"**고객님의 카드론 상환을 위해 C의 □□은행 계좌 xxxx로 입금해 주세요**"라는 안내를 받고 C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

□ 이후 B는 대출이 되었다는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여기던 중 △△카드사의 대금청구서를 받고 **카드론대출이 상환되지 않은** 것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됨

⇨ **【유의사항】**

①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예금 또는 대출거래 실적을 통해 올라갈 수 없으므로 **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**하라는 요구는 **100% 보이스피싱!**

② 대출금 상환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, **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상환**을 요구하는 것은 **100% 보이스피싱!**